

## 포토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하굣길 범죄 예방 간담회 참석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최근 강북경찰서 주최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이순희 구청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금천구 시장1·4동, (주)금천환경사 물품 기탁 받아

(주)금천환경사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시장1동 주민센터와 시장4동 주민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물품을 기탁했다. 사진은 기탁식에서 김자연 시장4동장(오른쪽)이 김재식 (주)금천환경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노원구, 단식노원 거리페스티벌 성료

서울 노원구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된 '2025 단식노원 거리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페스티벌에서 오승호 구청장이 개막을 선포하는 모습.



이권재 오산시장,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참석

경기 오산시가 최근 오산청년지원센터 이룸집에서 열린 제5회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아주 보통의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행사에서 이권재 시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모습.

# 이웃사랑 풍성... 추석 명절 앞두고 온정 나눔 '훈훈'

성동구, 30일까지 취약계층 식료품·생활용품 전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추석맞이 이웃 사랑 생활용품 나눔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웃사랑 생활용품 나눔 사업'은 명절을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기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성동구 17개동 주민센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구립 운동장, 성교사찰(성락성결교) 등 총 25곳이 기부 거점기관으로 운영된다.

각 거점기관은 기부 박스를 설치해 나눔을 원하는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물품

은 라면, 통조림, 즉석밥 등 식료품과 치약, 삼푸,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변형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생선, 과일 등)은 접수가 제한된다. 기부된 물품들은 동주민센터와 성동희망장터드니눔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여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 연휴에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 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생활용품 나눔을 명절마다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도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숙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기탁식에 참석한 김경희 시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강 취약계층 발굴·돌봄 앞장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위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현)가 최근 '5기 이웃건강활동가' 73명을 위촉했다.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수도의 건강공동체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5기 활동가 73명은 지난 1~4기 활동가 124명과 함께 지역사회내 불편 사각지대 해소와 일상 속 건강 실천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웃건강활동가는 2022년 도입된 '건강이랑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계해 활동한다.

한편 종로구의 건강이랑서비스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의료인력과 건강 전문가의 맞춤 상담과 관리를 제공하는 생활관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다.

고동안 구는 2022년 건강이랑서비스 시작과 함께 지역내 5개 권역

에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약 8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긴장·영양·운동·정신건강·민성질환 관리 등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 등 1만6700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 기준 6200명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웃건강활동가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기방방문 및 일부 확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건강이랑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종로구의 건강이랑서비스는 지역과 이웃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혁신 모델로 평가받으며 지난해 2024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일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도 선정되는 괘거였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예산군, 직원 배우자 수술에 헌혈증 기부 운동

## 소중한 생명 위해 사랑과 감동을

충남 예산군은 증증 간접환으로 간이식 수술을 앞둔 직원의 배우자를 돋기 위해 진행된 헌혈증 기부 운동에 군청 공직자 및 지역 사회가 적극 참여하며, 총 180여장의 헌혈증이 모였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초 해당 직원 배우자의 긴급 수술 소식을 전하며 내부 공지를 통해 헌혈증 기부를 요청했다. 이에 군청 각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특히 군 자율방범대가 50장의 헌혈증을 기

부해 큰 감동을 전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한 봉사처럼 이번 기부도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대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혈증은 해당 직원에게 전달됐으며, 일부는 익명으로 기부돼 더 의미 있는 나눔이 됐다.

군 관계자는 "군청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발방법대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예산김병희 기자 kus@siminilbo.co.kr

## 이천시 곳곳 따뜻한 희망의 물결 흐르다

추석 맞아 저소득 가구·취약계층에 후원 이어져

경기 이천시가 최근 더기오는 추석을 맞이 지역의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주)이천시네마는 은수리상품권 600장(600만원 상당) ▲(주)시몬스는 청소년 184대(4000만원 상당) ▲이천제기는 햄프 4kg 300포(600만원 상당)를 각각 기탁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시는 기탁받은 물품과 상품권을 명절 앞두고 생활비와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하며 찾았다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기탁은 단

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한다'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단체와 협력해 위기기구 긴급 지원, 행복한 동물 사업, 물불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으로 복지망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어르신·장애인 초청 정성 가득 식사 대접

인천 남동구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지역과 이웃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혁신 모델로 평가받으며 지난해 2024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일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도 선정되는 괘거였다.

우동, 과일 샐러드 등을 정성껏 준비해 노인들에게 대접했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암말과 떡을 선물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남동구는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람이 기득한 만수1동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원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 여러분의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황현숙, 풍정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람이 기득한 만수1동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문찬희 기자 mcs@siminilbo.co.kr

내일 '클래식 판타지' 음악축제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정성수)는 24일 오후 6시30분,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 아트홀에서 '제8회 클래식 판타지: 시계와 아리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기발한 수놓은 시와 아리아의 선율로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클래식 판타지'는 매년 가을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련된 음악축제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는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공연을 통해 기발한 수놓은 시와 아리아의 선율로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무대에는 ▲제20회 남성남송협회 시낭송 2회 ▲(사)한국문학예술협회 시낭송 2회 ▲아름모니아 중창단 ▲데너 정의근과 피아니스트 김지연 등이 올라, 총 22편의 시 낭송과 중창·성악을 선보인다.

사회는 KBS 박주아 아나운서가 맡는다.

"클래식 판타지"는 예스24를 통해 무료 예매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구청장은 "이번 클래식 판타지 공연이 선사할 문화와 음악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많은 위로와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숙진 기자 zini@siminilbo.co.kr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INNOVATIVE GROWING CITY**

all ways INCHEON